

「여신거래 안심차단」 간담회

모 두 발 언

2024. 8. 23.

금 융 위 원 장
김 병 환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복현 금감원장님, 최유삼 신용정보원장님,

짧은 기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써주신
각 금융협회장님과 중앙회장님, 우정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소비자 대표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의의

작년말 민생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09.)"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가정의 생활자금과
평생 소중히 모은 은퇴자금을 탈취하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주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을 일삼는 등 그 피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즉시 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홍보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참여 금융회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국민들께서 안전한 금융거래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Ⅲ. 맺음말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